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완전 군장”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

찬미 예수님! 일 년 만에 공소사목지를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그간에 저는 소속 부대가 바뀌어 육군 부사관학교(전 하사관학교)로 옮겨 사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 내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복무하게 될 초급간부인 부사관들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곳입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부임해 부사관 후보생들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미약하나마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 미사도 봉헌하고, 각 교육대를 방문하여 위문하고, 그들의 정신전력 형성을 위해 인성교육도 실시하고, 후보생들이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수녀님과 함께 예비자 모집과 교리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곳 성당은 부대 영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훈련 중에 있는 후보생들을 매일 만나게 됩니다. 부대 안에 예배당, 불교 법당, 원불교당도 함께 있지만 유독 성당이 부대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서 후보생들이 성당 주변에서 전술 훈련을 실시하거나 행군을 하며 거쳐 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간에 후보생들이 개인 군장(전술활동 시 필요한 휴대장비)을 메고 속보로 행군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잠시 쉬어가도록 해 줄 때 그들도 기뻐하고, 저도 그 젊은이들이 대견함을 느끼며 보람을 찾을 때가 많답니다. 올 여름 캄캄

한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무척이나 힘들었을 때도 이 곳 부사관 후보생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완전군장을 챙겨 행군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이 학교에 입소하여 약 4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하사’로 임관하여 전후방 각 부대의 초급간부로 배속되어 갑니다. 그 과정 중 행군은 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숙달되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영내에서 주로 20Km 거리를 야간에 무거운 군장을 메고 걸도록 훈련시킵니다. 이른바 쾌속행군입니다. 비지땀을 흘리며 걸어가는 그들의 군장과 방탄모, 개인 화기는 그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십자가와 같은 것이죠. 그냥 야외에서 있기만 해도 옷이 젖고 땀이 나서 짜증스러운데 얼마나 힘이 들고 지쳐 쓰러져 눌러 앉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행군하는 코스 중간 기점의 성당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성당 앞마당에 작은 숲이 조성되어 있고 교육생이나 후보생들이 행군이나 매복 훈련 시 쉬어가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시 군장을 내려놓고 세수도 하고 목도 축이고 지친 몸을 잠시 누웠다가 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들을 만나며 격려해 줄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피해갈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며 세 번이나 쓰러 지시고, 얼마나 힘들셨는가를 묵상해 보곤 합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는 누구나 각자가 지고 가야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삶의 무게를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족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소리쳐 보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며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동행하며 용기를 북돋우고, 힘들 때 위로하며 하사 임관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볼 것입니다. 그것 역시 하느님의 은총과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후보생들이 둘러 멘 무거운 군장이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충성!

육군 부사관학교 성 요셉 성당 이동명 사도요한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이자 군인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시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정 생활을 통하여 또 군인생활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비에 더욱 일치할 수 있기를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46번 ‘사랑의 송가’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창세기 2장 18절-24절

안 내 :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주십니다.

묵 상 : 사람은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날 때 환성을 터뜨립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그의 일부를 불완전하게 하시고 협력자를 통하여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뜻에 대한 감탄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제2독서 : 히브리서 2장 9절-11절

안 내 :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하여 구원의 영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시고 완전하게 되시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복음 10장 2절-16절

강 론 : “완전 군장”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1-2쪽)

예물준비성가 :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 496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영성체 후 묵상

불완전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
하느님 섭리로 협력자를 만나고
점점 완전한 존재로 성장해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나와 나의 협력자를 통해
하느님 나라의 완전함을 발견하려는 원의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갈등과 오해들은
배움의 길을 열어줄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과 변화의 가능성을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
협력자를 보내주셨고
나도 다른 사람의 협력자로 불림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협력자를 감사히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나눕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399번 ‘주님 안에 하나’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22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 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10월 7일(연중 제27주일) 의성 본당
- 10월 14일(연중 제28주일) 모전동 본당
- 10월 28일(연중 제30주일) 하망동 본당

■ ‘성경 통독 일기’ 연수(의성지구)

- 일시 : 8월 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14~17시
10월 13일, 27일, 11월 3일
- 장소 : 의성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회비 : 1인 4만원
- 대상 : 의성지구 신자

■ 열린성경강좌 6

- 일시 : 10월 15일(월)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천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안계 본당 주임)

■ 교구장배 게이트볼 대회

- 일시 : 10월 9일(화) 09:00~16:00
- 장소 : 안동시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 전용구장
- 참가비 : 팀당 8만원(점심 및 간식)

■ 제14회 못자리 신앙잔치

- 일시 : 10월 13일(토) 10:00~17: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운동장
- 대상 :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
- 준비물 : 미사준비, 운동복, 운동화, 개인식수, 명찰
- 신청마감 : 9월 21일(금) 사목국으로
- 회비 : 1인 5,000원(유치부 포함)

■ 가톨릭 CCM 인터넷 방송국 개국 10주년 기념-생활 성가 피정

- 일시 : 10월 13일(토) 17:00 ~ 14일(주일) 13:00
- 장소 : 농은 수련원
- 회비 : 1인 70,000원
- 신청 : 10월 5일(금) 사목국으로

■ 여학생 수도 성소자 모임

- 안동/북부지구 일시 : 10월 14일(주일) 14:00
- 안동/북부지구 장소 : 휴천동 본당
- 상주/문경지구 일시 : 10월 21일(주일) 14:00
- 상주/문경지구 장소 : 모전동 본당

■ 예비신학생 10월 모임

- 일시 : 10월 21일(주일)
- 장소 : 교구청

■ 꾸르실료 월례미사

- 일시 : 10월 22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M.E 제40주년 가족모임

- 일시 : 10월 20일(토) 10:00~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ME주말을 수강한 사제, 수도자, 부부
- 문의 : 임효균(제노비오) 010-3528-2370

■ 1일 영성피정

- 일시 : 10월 20일(토) 10:00~17:00
- 장소 : 계림동 성당
- 강사 : 김현조 스테파노
- 회비 : 5천원
- 문의 : 성령쇄신봉사회 010-8447-0111

■ 은총 제1차 꾸르실료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11월 15일(목) 16:00~18일(주일) 17:00
[3박 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만원
- 접수마감 : 11월 2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 후 3년 경과하였거나
간진성사 받은 분 7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가톨릭 상지대학교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 수시 2차 모집 : 11월6일~11월20일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군(軍)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51회 군인 주일을 맞이하여 군의 복음화와 모든 군인들에 대한 봉사의 삶에 헌신하는 군종 사제, 남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들과 함께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깊은 나라 사랑으로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장병들, 군 간부들 및 지휘관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 군과 군 가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종후원회 회원님들께도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에, 현재 진행 중인 북미회담 및 남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을 움직이시어 ‘진정한 평화’라는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맺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저는 누구보다 강한 애국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인들이 변함없이 긴장된 자세로 나라를 지키는 사명에 충실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대들이 있어 우리가 안전합니다.”라는 칭송을 듣는 군인들이 되어주시길 희망합니다.

군종교구는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라는 사목표어 아래, 군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열정은 뜨거워질 수도 식을 수도 있기에, 어떤 중요한 목표를 가질 때에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태를 자주 점검하면서 지속적인 열정을 지니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금년도 사목교서에서 사도 성 바오로의 다음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2티모 4,7-8) 이 사목교서에서 나 자신의 복음화와 모든 이의 복음화를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복음화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을 모르는 군인들과 군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군종 사제들과 군종 사목에 임하는 수녀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 신자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아주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첫 번째 것인 ‘하느님을 모르는 군인들과 군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히 젊은 장병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저희 교구가 세례를 베푼 통계를 보면 연평균 24,0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받은 군인들 가운데 95%가 젊은 장병들입니다. 우리 군종 사제 역시 군인이기에, 모든 군인들의 봉사자로서 모든 군인들을 찾아가 격려와 위로와 가르침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장병들의 영적인 아버지요 벗이요 동반자요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혼 구원’의 사명감을 갖고 하느님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군인들과 군 가족들에게 열심히 그리고 기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루카 24,47-48)

복음화의 두 번째 모습인 기존의 신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승천하시기 직전 하신 일이 바로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어 그에게 당신을 계승할 지상 최고목자로 임명하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세 차례나 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예”라고 답할 때마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라고 간청하고 명하신 일입니다 (참조: 요한 21,15-18). 주님의 목자인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이 간청, 이 명령을 늘 유념하면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종 사제들과 군종 사목에 임하는 수녀들은 이 “영적 돌봄”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면서 군 신자들이 성경 말씀, 기도, 성체성사를 가까이하는 삶, 그리고 형제적 친교의 생활에 보다 충실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목방문을 하면서 장병들, 간부 및 지휘관 그리고 군 가족들이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큰 기쁨을 가집니다.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더욱더 충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국가의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변함없는 지원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군인 주일 51주년을 맞아 군 사목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교우 여러분의 영육 간의 건강을 빌고 국군 장병들, 군 간부와 지휘관들, 군 가족들 그리고 군종후원회 회원 여러분께도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2018년 10월 7일
천주교 군종교구장 유수일 F. 하비에르 주교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춘희 테클라
(안동가톨릭문인회)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저마다 조상님들의 묘소 벌초작업을 하느라 주말이면 분주한 것 같다. 우리시댁 조상님의 묘소 벌초도 해야 되는데 남편은 걱정이 늘어졌다. 지난해 벌초하다가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아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남편이 안타까워 벌초대행업체에 맡기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럼에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 짝하게 느껴졌다.

조상님의 묘소 벌초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에 맘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평소에도 늘 봉사생활에 익숙한 어떤 형제에게서 전화가 왔다. 작년에 벌초하다가 다친 남편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 집 벌초가 걱정이 되었다며 그 형제가 해주신다고 하셨다. 뜻밖에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기쁜 맘으로 남편에게 얘기를 하였더니, 작년에 벌 소동 때문에 다친 생각을 하니 누구에게 맡겨서 그때와 같은 일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고, 묘소를 오르는 길 입구부터 돼지감자와 칩닝쿨, 역새풀들이 길을 막고 있으니 시작부터 어려운 벌초 작업을 맘 편히 선뜻 맡기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다. 남편의 마음을 대신해서 걱정 해주셔서 고맙지만 안 해 주셔도 된다고 형제에게 말씀드렸다.

그러나 형제는 아무 걱정 말라며 오히려 우리를 안심 시키며 소풍 간다는 생각으로 간식만 준비해 달라고 하시며 먼저 시간약속을 하셨다. 좋은 뜻으로 하고자 하시는 그 형제의 마음은 참으로 하느님의 일꾼이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눈앞에 보이는 결과보다 먼 앞날을 내다 볼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고 지혜를 내어 실천하는 그 모습에서 그 형제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임을 다시금 느끼게 하였다. 남편은 형제님의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약속을 하였지만 벌초하러 갈 때까지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다.

막걸리와 정구지 부침, 과일과 몇 가지 간식을 준비하는 내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다. 그 형제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한 명 더 데리고 오셨다. 두 분의 성향이 비슷하여 마음도 잘 맞았다. 봉사생활에 익숙한 두 형제님은 예초기를 들고, 남편은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나는 낫과 갈고리를 들고 쳐놓은 풀을 긁어내고, 덜 깎인 칩 줄기를 잘라내며, 묘소 가는 길을 다듬으면서 뒤따라갔다. 한참 후 허리를 펴서 뒤를 돌아보니 흰하게 새 길이 만들어졌다. 기분이 좋았다. 한 두 시간쯤 지나 준비한 간식 보따리를 풀고 허리도 폈다. 저 멀리 수채화가 펼쳐져 있었다. 매년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과 함께 성묘 올 때 보았던 그림과는 달라보였다. 오늘 눈앞에 펼쳐진 대형 수채화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참 아름답게 보였다. 외동아들인 남편은 수년간 혼자서 외롭게 조상들의 묘소 벌초를 해 왔었는데, 오늘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흐뭇하였다.

정성을 다하여 벌초를 잘 마무리해 주시는 두 형제님들의 마음엔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가 함께 계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버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참으로 흔치 않다.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신 두 분의 형제님은 먼 앞날을 내다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예언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희생 없이 축복만 받으려는 어리석었던 생각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늘 생각만 앞서고 실천을 더디게 하였던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날이었다.

오늘은 벌떼도 없었고, 날씨도 좋았으며, 벌초작업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없었다. 그저 풀들만 무성하였기에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벌초작업을 끝냈다. 두 형제님을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뽑아 세우시고,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하루였다.